

지 상 범 석

받은것 돌려주는 보은

“사람으로 몸을 받고 태어난 것도
여러생 선업을 쌓은 까닭
부모 형제·이웃은 시은 베푸는 부처님”

비구도 그간 운수행각을 하며 전성의 경지에
이러었나... 하더니 훌쩍 사라 졌습니
다.

바뀌어지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베풀어
도 그것이 자랑이어서는 안됩니다. 나를 이
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여 마침내는 온
중생계가 이로워 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행인데 나를 내세워 나는 얼마를 희
사했다' 하고 자랑을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보시의 공덕은 사라지고 높아진 아심으로
미혹의 풀뿌리만 키우는 것이니 어찌 조심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부처님 법에 귀의한 불자들은 내가 베푸
는 것이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게 받은 은
혜를 갚는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베푸는 행동으로 누군가 또 한번
의 좋은 일을 할 것이라 생각에서 범칙야
합니다. 오늘 내가 베풀었으니 뭔가 더 좋
게우고 지혜를 부추겨 주는 일은 바로 성
불의 종자를 심어 주는 일이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은 무외시(無現
施)인데 남의 공포와 두려움을 없애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좁
은 논리는 합당치 않습니다. 내가 잘 살고
이웃이 잘 살고 온 인류가 함께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는 단
하루도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단 한 시간
도 범죄와 비도덕이 발생하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살기위해 남을 짓밟아야
한다는 동물적인 적자생존의 논리가 인간
삶의 현장에 너무 만연된 것이 안타깝습니
다. 종교인은 그런 동물적인 투쟁의욕을
제거해 나가는 일에 앞장 서야 합니다. 특
히 불자들은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 서야
합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법문이 모두
인간의 광명과 화합으로 귀착되고 있기 때
문입니다. 나의 수행과 나의 건성성불도
결국은 아직 미혹세계에 있는 중생을 구하
고자 함에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앞에서 법시를 얘기 했지만 부처
님이 베푸신 법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
리의 짧은 언설로는 다 헤아리지 못할 것
입니다. 그 법시를 입은 우리도 한량없는
진리의 몸을 얻어 드넓은 법시행을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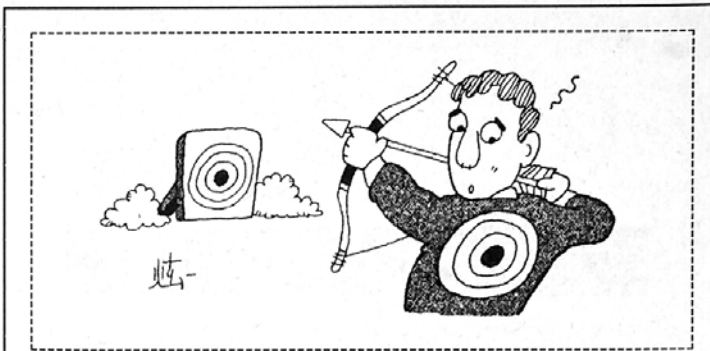
나 한사람 재시·법시·무외시로 중생계 이롭게해
보시행 자랑하고 반사이익 생각하면 악업종자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데서 중생의 악
업은 끝이 없어 지는 것입니다. 부처
님도 '보살이 육도만행을 닦는데 있어 무
엇보다 보시바라밀을 많이 닦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가운데서도
보시를 제일로 꼽는 겁니다. 보시는 그냥
베푸는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
음을 받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쁜 마
음은 또다른 선업을 짓게 하니 보시는
수많은 중생이 선업을 짓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사람의 한가지 보시
행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업을 짓
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씨 좋
은 모습 총각이 이승에서 한번 좋은 마음
으로 시주하면 여러생의 악업을 한생에 다
제하고 다시 인간계로 와서 또 여러 스님
들을 시봉하고 여러 신도들을 기쁘게 한
것이 바로 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보시공덕은 나 한사람의 공덕이
아니고 어느 공덕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잠시 이 육신을 빌려 입고 이승 인연의 실
타래를 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보살것 없
는 인생에서 나를 더 살찌우고 더 높이고
더 유명하게 하려는 생각에 얽매어 참다운
나의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
난 것도 여러 생의 선업을 가진 까닭이었
는데 더 나은 업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허
망한 명리에 있어 악업만 쌓는다면 어느생
에 성불의 원력이 회향되었습니까. 너도 나
도 다 유한하고 보살것 없는 중생이니 서
로 도우며 성불의 선근공덕을 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에 귀의해 살고 수행을
하는 것의 가장 큰 목표는 생노병사의 끝
없는 윤회를 벗어나 해탈 열반의 대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인간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온 인류가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에는 살아가
는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서라고
할 수도 있고 도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
니다. 굳이 부처님 교설이 아니더라도 인간
의 삶에서 지켜야할 도리를 잘 지키고 산
다면 이 땅은 극락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내욕심 챙기고 남 짓밟고 살기에
지구상에 전쟁·범죄가 계속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몸을 받아 태어난 것
도 나만의 공덕이 아니고 지금 어려움 없
이 살고 있는 것도 나만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은 모두 나에게 시은을
베푸는 부처님들입니다. 내 부모 형제도 나
에게 시은을 베푸는 보살님들입니다.



반야심경의 첫머
리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으
로 시작한다. 우리
가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서 사물을 볼
때는 분명히 공(空)
이 아니다. 그런데
도 경(經)은 말하기
를 반야로 볼 때는 오관으로 본 모든
것이 사실은 공(空)이라고 하였다. 경
이 맞다면 우리가 오관으로 본 것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
면 현대물리학은 '오온개공'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많은 물리학자들이 시공간(時空間)
과 물질 모두가 무(無)에서 나왔다고
추론하고 있다.

'오온개공' 직관으로 꿰뚫어보아야 확연
경험·지식·사고의 확대위해 큰지혜 필요

아리는 분별지(分別智)가 아니고, 직관
으로 꿰뚫어 보는 직관지(直觀智)를 뜻
한다. 모든 사물의 진실을 한꺼번에 꿰
뚫어 볼 수 있는 반야지(般若智)라는 것
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반야지가 없
는 사람이 헤아릴 길은 없지만 적어도
분별지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는 있다.
분별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경전이
말하는 바가 왜 그렇게 일상적 경험이나
사고방식과 다른가를 헤아릴 길이 있는
데 분별지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엄밀
한 수학적 증명이 있다. 이 증명을 괴델
(Kurt F. Godel, 1906~1978)의 '불완전성
정리'라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의외로 쉽
다. 미적분학의 발견을 놓고 공을 다른
위대한 물리학자 뉴턴(Newton)과 철학
자 라이프니츠(Leibnitz)사이에 다음과 같
은 두가지 언쟁이 있었다고 하자.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뱃따파리아 지음
장의 옮김
●신국판/284면/값 6,000원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1호를 발간하였습니다.